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8년 만 또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4일 새벽 해제 민주당 등 야 6당 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5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인 6~7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 후인 4일 새벽 해제하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향후 정치권에 격랑이 몰아칠 전망이다.

>> 관련기사 2.3.4.5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

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소속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의 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을 넘겨 찬성해야 통과된다.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있다. 6명 모두 탄핵 인용에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

23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이 추진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8년 만에 같은 보수 정당 대통령의 탄핵이 재현되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오후 10시 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다음 날 오전 1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됐다.

국회=부미한기자 bu8385@ihalla.com

### 김용현 국방부 장관·대통령실 참모들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이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알지만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들과 함께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일부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

해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진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미한기자

##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조찬세미나 성료,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 솔루션 제공

제주상공회의소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조찬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다양한 강연으로 도민들과 상공인들에게 경영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민과 상공인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주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 솔루션 세미나를 제공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b>138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b> ○일 시: 2024년 2월 20일(화)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2층 연회장 ○강 사: 한 상 철 제주해양경찰청장 ○주 제: 해양DNA와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경찰과 함께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	<b>139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b> ○일 시: 2024년 3월 26일(화)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2층 연회장 ○강 사: 강 영 훈 제주평화연구원장 ○주 제: 대만 유사 사태와 한국외교	<b>140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b> ○일 시: 2024년 4월 30일(화)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2층 연회장 ○강 사: 유 명 환 전 외교교통상부 장관 ○주 제: 한반도의 지정학과 안보정세
<b>141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b> ○일 시: 2024년 5월 28일(화)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1층 연회장 ○강 사: 신용규 인바이츠생태계 회장 ○주 제: 제주로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성장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예시로)	<b>142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b> ○일 시: 2024년 06월 25일(화)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1층 연회장 ○강 사: 박 한 일 (주)소울푸드코리아 이사 ○주 제: 노포에서 배우는 현장 생존 능력	<b>14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b> ○일 시: 2024년 9월 24일(화)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1층 연회장 ○강 사: 서 상 영 미래셋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주 제: 미 대선과 경기 둔화시기 대응 전략
<b>144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b> ○일 시: 2024년 10월 29일(화)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2층 연회장 ○강 사: 그레이스 조 뉴아시아오페라단 단장 ○주 제: 리더를 위한 오페라 이야기	<b>145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b>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2층 연회장 ○강 사: 정 덕 구 NEAR 재단 이사장 ○주 제: 대한민국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	오프라인 강의 안내를 희망하시는 도민 및 상공인께서는 제주상공회의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4-755-2556